



다양한 “고양이 마을”

‘하나의 같은 현상이 숨겨진 ‘비밀의 이면’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메타피지한 신비를 품은 문제는 없다. 나는 어렸을 때 벽에 걸린 액자의 그림을 보고 항상 열심히 생각했다. 대체 이 액자 속 풍경의 뒷면에는 어떤 세계가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걸까. 나는 몇 번인가 액자에서 유화를 꺼내 뒷면을 들여다봤다. 그리고 그 아이의 의문은 어른이 된 지금도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어 있다.’(“고양이 마을”)

“고양이 마을”은 시인인 사쿠타로가 쓴 몇 안 되는 소설 중 하나로, 지금도 표지 디자인이 아름답게 바뀌어 계속해서 읽히고 있습니다. 세타가야 문학관에서는 이 소설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식 인형 상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상자 속 기하학적인 거리를 인형이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세계와 조우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빛과 소리와 이야기가 만들어내는, 또 하나의 《고양이 마을》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



MUTTONI 《고양이 마을》 1994년 원작: 하기와라 사쿠타로 “고양이 마을”(MUTTONI=스스로 움직이는 인형 작가 무토 마사히코의 별명)